



고독과 침묵의 전도자, 헨리 나우엔

이춘성

1. 고독을 통해 나우엔을 만나다

내가 나우엔(Henri J.M. Nouwen)을 처음 접한 것은 1997년 도서관 한 귀퉁이 독서실용 책상에서 공부에 지쳐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학생 선교단체를 하던 때인데 친구들은 한 학기 먼저 성경공부 리더가 되어 있었고, 난 처음 리더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담당간사님이 생일 선물로 나우엔의 책을 책상 위에 얹어 놓으셨다. 처음 보는 저자의 책이었다. 난 대학 2학년 때 신앙의 큰 위기를 맞았다. 그간 믿음 좋은 아이로 통하며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했지만 정작 대학에 들어와 난 결단 있는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긴 방황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친구들은 먼저 리더가 되었고 난 뒤처지게 되었다. 이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낙오된다는 느낌, 사람들에게 소외 된다는 느낌,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 이런 외로움은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나에게 나우엔의 “영적 발달”이란 책은 희망을 주었다.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내 시각을 전환 시켜 준 것이다. 난 그 외로움을 감사 할 수 있었다. 아마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독의 시간은 필요하다. 또한 인생의 중요하고 일정한 기간을 고독과 침묵의 시간으로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것이다. 더욱더 다양한 세상에서 '나' 라는 존재의 이유를 찾기로 쉽지 않음을 느낀다. 한번씩 서울에 가서 강남 역에서 환승 할 때가 있다. 양양에 있으면 옷과 머리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내 옷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유행에 맞는지 보게 된다. 마치 “나” 라는 존재가 아닌 내가 걸치고 있는 물건이 날 말해 주는 것 같다. 또한 이곳 양양에는 집도 드물고 사람도 드물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물어보고 싶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거센 인파(人波)만 보이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하고 싶다.

누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요즘 학생들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면 이들의 특징은 개인적인 친밀감을 더욱 원한다고 한다. 그런 분석은 대량화, 도시화라는 현대적 이미지와 상대적인 현상처럼 보인다. 이는 심리학과 같은 인간 개개인에 대한 학문이 산업화 도시화와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함께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기계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자신이 기계와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친밀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나우엔은 이런 사회적인 필요를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하고 개척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2. 나우엔의 생애

나우엔은 1932년(Nijkerk, Holland, on January 24, 1932)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천주교 집안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천주교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는 다섯 살이 되던 때에 처음 신부가 되기로 마음을 정한다. 그리고 1957년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한다. 후에 196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메닝거 클리닉에서 공부를 더하고 노트르담 대학에서 심리학을 처음 가르치게 된다. 그는 단지 심리학이라는 학문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사제인 그는 신도들을 돌보는 목회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는 목회신학에 심리학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것은 대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예일 대학 신학부에서 정교수로 가르치게 된다. 가르치면서 그는 뉴욕의 한 수도원의 수도승으로 약 일년을 기도와 연구에 전념한다. 그 후 그는 대학을 그만두고 약 육 개월 정도를 남미의 분쟁지역인 페루를 방문하면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들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후에 그는 그의 고통에 대한 다른 시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그의 '새벽으로 가는 길'이란 책에서 고백한다. 그 후 그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며 북미의 여러 주를 돌아다니며 강연회를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그는 몇 년 전에 그의 여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학교를 영영 떠나게 된다.

나우엔은 그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한 여인의 황당한 방문을 떠올린다. 70년대 '얀'이라는 한 여인이 그를 찾아 왔다. 그녀는 장 바니에(라르슈 공동체의 창시자)의 안부를 전하러 왔으면서 문을 두드렸다. 그는 그녀를 방안으로 초대했고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바니에가 자신에게 그녀를 보낸 줄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안부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바쁜 일정 때문에 그녀를 남겨두고 그는 강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가 알지 못했던 그릇과 식탁포가 씌어진 푸짐한 성찬이 준비 되어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갔다. 이런 이상한 경험은 나우엔에게 10년의 교수직에서도 채우지 못한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후 그는 프랑스의 새벽공동체를 찾아가게 되고 그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서 한 중증 정신 지체자인 "아담"의 수발을 들다 1997년 심장마비로 그의 고국인 네덜란드에서 돌연사 했다. 그 후 그의 시신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의 킹시티에 안치 되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책과 삶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성을 배우고 싶어 책을 읽고 분석해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전기 작가와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의 영성은 개인적이며 체험적이다. 그의 저서들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 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하거나 굴복

시키려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일기를 쓰듯이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그에게 하나의 원리가 있었다면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상과 같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3. 나우엔의 삶

a. 그는 참된 학자였다. 그는 오랫동안 겸손한 학자였다. 20년 동안 최선을 다한 학자였다. 그는 성실히 연구했고 목회신학에 심리학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로 “마음의 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중요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티칸의 연구 학자로 로마에서 일하면서 지성주의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b. 사회의 불의에 눈감지 않고 실천하는 지성이었다. 그가 처음 사회비평과 개혁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은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신문을 통해 접하고 나서였다. 젊은 그는 그 일을 보고 천주교 잡지에 글을 기고한다. 그리고 그는 내전 중에 있는 페루와 볼리비아에 가서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들과 함께 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나머지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에서 봉사한다. 그의 삶은 세상과 그의 사상과의 긴장이었다.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앎과 행함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c. 그는 고독과 침묵의 전도자였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그는 이 세대가 인간의 존재를 기계와 같이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견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바른 존재 양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통로는 사막의 교부들과 같이 인간 존재를 소외시킨 세상을 역으로 소외시킬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고독과 침묵이다.

d. 그는 상처 입은 선지자였다. 이는 그의 전기 작가인 마이클 포드가 그의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는 탈무드의 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킨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메시야가 누구인지 물어본다. 그러자 성 밖을 나가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엘리야는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한다. 그러자 성 밖에 나가 자신의 봉대를 남들보다 천천히 풀면서 남의 봉대를 갈아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한다. 바로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사람을 도우려 하는 심리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사제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던 그는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발견한 것이다. 바로 그는 돕는 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상처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공감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그의 삶의 대부분을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애썼다. 극도의 빈민들과 함께하고 전혀 말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단 한번도 그보다 내가 더욱 낫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이 시대에 “공감하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외친

상처 입은 선지자였다.

e. 그는 개인의 삶을 통해 세상에 말했다. 그는 세상의 어려움을 외면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회운동가들과 같이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는 대중설교나 방송을 통하기 보다는 소수를, 소수보다는 개인적 시간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그의 저서를 보면 대부분이 일기이거나 개인적인 회상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그가 공부한 것과는 달리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 용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마 포스트 모던한 이 세상에 인류의 기원과 같은 거대 담론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런지, 아니면 그의 성격인지, 그것도 아니면 실존주의 신학의 영향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일리가 있으며 그의 책에서도 그런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스무 살 마르코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키에르케골과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좋아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성경관이 신 정통주의의 바르트나 실존주의 신학자인 블트만과 같이 성경의 역사성이나 무오성을 부정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여튼 그의 대화 방식은 20세기 후반 기독교의 떠들썩한 예배와 여러 대중 집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포스트모던 세대에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난 이런 그의 영적 생활들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4. 나우엔 영성의 비평

우리는 이와 같은 그의 영성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유는 우리가 서양이 아닌 동양 문화 가운데 살고 있고, 그의 신학적이며 철학적 기반이 정통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비판해 보자.

4.1. 문화적 비평

동양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그의 영성 수련방법은 잘못 이해될 수 있다. 나우엔의 고독과 침묵은 우리나라의 선불교나 도교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목상이 명상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성경관에 근거한 하나님을 목상하는지 점검하는 것을 통해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성경 해석은 매우 주관적이며 상황적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만약 성경적인 세계관이 부족한 동양 기독교인들에게 고독, 침묵을 강조한다면 불교와 도교를 기독교와 혼합시키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개인적이고 관념적이며, 신비적[신앙은 알 수 없는 마치 불가설(不可說): 참된 이치는 말로설명하지 못하고 체득(體得)만으로 알 수 있음.]인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영성의 본질인 인간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러한 특별한 방법만을 추구한다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 삶에서 유리된 외딴섬과 같이 될 것이다.

4.2. 신학적 비평

첫 번째, 그의 신학적 철학적 바탕을 보면 그는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의 책은 대부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한 감정의 회복을 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공부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고독과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인 것처럼 말한다. 그는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의 팔복의 해석(마음의 길)을 보면 그의 해석은 역사적 사실과 필자의 의도를 넘어 전혀 다른 실존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탕자의 그림을 해석하는 나우엔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 그의 사막의 영성은 침묵을 넘어 언어의 부정과 지성주의 경계를 넘어 지성의 무가치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세 가지 '떠남'을 그의 영성의 기본서라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길(The Way Of Heart)에서 제시한다. 그것은 고독, 침묵, 기도이다. 먼저 그는 책의 서문에서 압바 아르세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한다. 그는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즉, "주여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르세니우스야, 세상을 피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몰래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배를 타고 가서(사막에서) 혼자 사는 생활로 들어간 아르세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다. 즉, "주여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즉, "아르세니우스야, 떠나라!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들이 무죄의 원천들이니라." 이 이야기에서 떠나라,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사막의 영성의 요약이라고 나우엔은 말한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인가? 세상으로부터이다. 그리고 그는 떠난다. 고독을 뜻하는 것이다.¹⁾

다음은 무엇으로부터 떠나는가? 언어로부터이다. 여기에서의 침묵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언어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나우엔은 "말은 현재 세계의 도구이지만 침묵은 미래 세계의 신비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미래의 하나님나라는 언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진정 체험하기 위해서는 침묵할 때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유한한 존재이기에 언어라는 유한한 요소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 넘으려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성, 특히 언약적, 의사소통적 인간성의 파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²⁾

최종 목표는 기도이다. 정확히 "마음의 기도"이다. 이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뜻한다. 이 기도의 특징은 지성의 모든 요소를 가져가지만 지적인 작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식은 있지만 이것을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힘은 인간에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아의 상실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나우엔은 이것이 지성적 우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한다.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 지적작용이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지적작용은 성화 되어지면서 바른 모습으로 그 모습을 탈바꿈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헨리 나우엔의 이 영성은 최초 예일 대학 재직 시절 사막의 영성 세미나를 통해 1981년에 발표되

었다. 이런 실존주의적인 영성과 수련방법은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일부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신 플라톤주의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은 지성과 언어, 세상의 삶을 영적으로 하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사막으로 들어갔고, 더 고차원적인 영성을 추구하려고 애썼다. 결과 이방 종교와 혼합된 신비주의가 교회에 들어 왔고,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이 교회에 득세하게 되었다. 그 후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은 학문의 영역을 비 영적인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학문을 버렸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원론에 빠져있었다. 잠시 세계관 운동과 지성적인 흐름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균형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도 고질적인 이원론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대형화되고, 교회는 오히려 인격이 있는 개개인을 소외시키게 되었다. 나우엔의 영성은 이와 같은 한국 기독교인들 기본적인 이원론적 영성과 대형화된 교회에서 소외된 성도들의 시대적 필요와 어울려져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이원론적 영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기독교의 역사성과 진리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들의 후예들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 나우엔이 가져다 준 좋은 점 중 가장 큰 것은 공감하는 사랑이다. 그러나 이런 공감은 언제나 진리에 바탕을 둔 사랑이어야 한다. 영국 런던에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평소 동성애에 관심이 있어 유심히 책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책장에 진열되어 있었다. 난 그 책을 성인경 간사님에게 선물하려고 사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읽어 봤다. 이 책의 저자는 가장 유명한 나우엔의 전기를 쓴 마이클 포드였고, 스스로 그의 제자임을 자칭하는 자였다.(그의 책들은 나우엔 소사이어티에도 추천되어 있다.) 그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자고 했다. 평소 나우엔도 그런 입장에서 필립안시와 같은 개신교 지도자들과 운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나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동성애자들을 장애인으로 보자고 했으며, 오히려 이들이 정상인들을 가르치는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평소 아담을 돌보며 나우엔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아담을 통해 무기력하게 하나님에게 나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른 삶의 모습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마이클 포드는 이를 동성애자들에게도 적용시키자고 주장한다. 이들을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³⁾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진리이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나우엔의 사상은 사랑의 지나친 강조를 넘어 상처라는 의미,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같이 받아들여도록 하는 것 같다. 동성애자거나 장애인들을 보면서 이들의 비참함과 세상의 죄의 심각성을 먼저 알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 비숍(주교)으로부터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와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사랑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학의 경계를 촉구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고 또한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진리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결론

그의 실천적인 모습은 그의 삶을 통해 제네시의 일기, 새벽으로 가는 길, 영성예의 길, 아담 등의 책을 통해, 라르쉬 공동체를 통해 구현되었다. 그는 진정 예일 대학을 떠나 남미의 내전중인 볼리비아로 향했고, 하버드대학을 떠나 프랑스 남부의 정신 장애자들의 공동체인 새벽공동체로 향했으며 다시 모든 이목의 집중을 떠나 한 사람, 1급 정신 장애자인 '아담'에게로 향하였다. 그의 실천적인 삶은 말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력이 약하다고 비판하는 세미나가 열리는 이유는 우리가 나우엔과 같은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나우엔의 신학은 실천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된 진리를 상황화 시키는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삶을 배우자. 그러나 그의 사상을 바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배우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참고서적

- 헨리 누엔, 마음의 길, 분도, 1989
 헨리 누엔, 새벽으로 가는 길, 성바오로출판사, 1988
 헨리 누엔, 상처 입은 치유자, 분도,
 헨리 누엔, 로마의 어릿광대, 가톨릭대학교출판사, 2000
 헨리 누엔, 아담, ivp, 1997
 헨리 누엔, 영적 발돋움, 두란노, 1992
 프란시스 웨퍼, 거기 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사, 1994
 제람 바즈, 래놀드 맥콜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ivp
 Yushi Nomura, 사막의 지혜, 분도, 1985
 Michael Ford, Disclosures, D.L.T., 2004

-
- 1) "사막의 교부들의 지혜"란 책의 추천서를 통해 그는 사막의 교부들이 신학자들의 평가와는 달리 이 세상을 등진 자들이 아니라는 주장을 사막의 교부들의 일화를 통해 변론한다. 사막의 교부들이 세상을 떠난 것은 박해가 사라지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순응하기 시작하고, 교부들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사막으로 가는 것이 순응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 2)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언어적 어눌함과 과피성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며 침묵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소음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해 준다는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
 - 3) 한 비숍으로부터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와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사랑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학의 경계를 촉구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고 또한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진리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